

■ 2025년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음악 분야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5년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음악 분야
- 회의일시
 - (1차 서류심의) 2024년 12월 4일 (수) 14:00~18:00
 - (2차 인터뷰심의) 2024년 12월 19일 (목) 14:30~18:00
- 회의장소 : 대학로 메이플레이스 호텔 컨퍼런스룸 1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박혜영, 신호경, 이미배, 임기현, 조사방

2025년도 <대한민국공연예술제지원> 음악분야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연예술 축제를 만들어가고 있는 24개 단체가 지원하였습니다. 음악분야 신청금액은 총 4,996백만원이며, 장르별 접수 비율을 고려하여 959백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기존 '공연예술창작주체' 사업유형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지원사업이 올해에는 별도로 분리된 사업으로 공모되었으며, 개별 축제를 지원하는 '개별지원유형'과 "대한민국 공연예술 여름 축제(가칭)"을 염두에 둔 '통합지원유형'을 구분하여 지원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5년 이상의 공연예술제 개최 실적이 신청자격으로 요구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음악 공연예술제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하고 공연예술제의 개최 역량이 이미 충분히 확보되어있는 단체들이 사업에 지원해 주셨습니다. 제출해주신 지원신청서와 최근 활동실적, 그리고 안전관리 및 재해대처 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1차 서류심의를 진행하였으며 7개의 단체를 2차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차 인터뷰 심의에서는 사업을 수행할 단체의 조직 구성, 축제가 지향하고 있는 비전과 목표, 사업 일정 및 예산 계획, 홍보전략 등 지원 단체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면밀하게 살피고자 했습니다. 인터뷰 과정에서 지원단체가 개별/통합 지원유형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졌으며, 해당 축제의 고유한 목표 및 비전이 있는지, 사업수행 단체가 공연예술제 사업의 주체로서 역량과 비전,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주로 질의하였습니다.

'음악분야' 카테고리 하에 신청된 사업들이지만, 각 축제가 표방하고 있는 음악의 장르는 매우 다양했으며, 다년간의 축제 개최를 통해 이미 충분히 개별브랜드로서의 위상을 갖춘 사업들도 다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음악, 전자음악 등을 위주로 한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전문적 청중을 대상으로 한 음악제 사업에서부터,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을 아우르는 대중적 음악축제까지 신청사업의 다양성은 대한민국 음악 공연예술계의 다양성을 대변해주고 있는 듯 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심의과정에서 사업별 특수성과 고유한 가치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했으며, 축제 내용의 구체성에 대하여 세심히 살펴보았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축제사업의 성격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성과가 정체되어 보이기 쉽기에 사업수행 단체가 사업의 핵심가치를 유지하면서도 급변하는 사회와 시대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새로운 공연예술제를 선보이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지도 주요한 심의기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본 사업에는 타 공모사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예산이 신청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사업별로 예산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이루어졌습니다. 타 공적재원의 확보 여부, 공적 재원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의 대비현황, 과거 수익의 재투자비율, 외부 후원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 단체별로 공적재원의 필요성과 본 사업 수혜여부에 따른 구체적 예산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본 지원금이 공적재원인만큼 해외 유명 아티스트의 초청에만 과도하게 집행되지 않기를 바라는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통합지원유형으로 변경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혀주신 단체는 추후 축제운영위원회에의 참여, 주도 하에 타 분야 공연예술제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연예술제로서 통합적으로 브랜딩되고 홍보되어 보다 넓고 다양한 청중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선정된 사업의 수행단체는 해당 사업이 국민적 예술 향유의 주요한 이벤트이자 국제적 수준의 축제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심의위원 일동